

1.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
2. 예수님을 전염시키는 교회
3. 청소년 사역에 집중하는 교회
4. 주님의교회들을 번식하는 교회

함즐함울

PRESBYTERIAN CHURCH OF THE LORD WEEKLY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올라 (롬 12:15)

통권 제 169호

발행일 : 2006년 4월 16일

발행처 : 주님의교회 홍보출판부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50-4
(정신여중고 내) 02-416-5181
www.pcltv.org

고난주간 새벽기도, 성금요일예배 그리고 부활절

고난에 동참하고, 부활을 소망하며, 새로운 피조물로 날마다 거듭나길...



지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까지 사순절 특별새벽 기도회가 있었다.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부활을 소망하는 500여명의 성도들이 새벽을 깨우고 대예배실에 모였다.

문동학 담임목사는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라”

(행4:33)라는 주제로 5일간 설교했다. 기독교의 핵심적인 신비(미라클)를 공통어로 한 이번 메시지는 ‘준비의 미라클’, ‘빈무덤의 미라클’, ‘엠마오의 미라클’, ‘부활의 미라클’, ‘승천의 미라클’로 이어지며 성도들을 도전하며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게 했다. 요일별로 교구가 연합해서 특송의 순서를 맡았으며 변함없이 봉사부가 정성스런 손길로 새벽기도회에 참석한 성도들에게 간식을 준비했다.

또한 지난 성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는 성금요일예배가 드려졌다. 성금요일예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날을 기념한 날로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고 부활을 소망하여 기도하는 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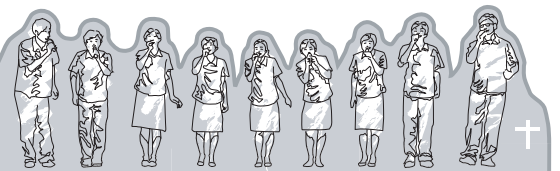
시온찬양대의 칸타타 H AMI와 성찬예식이 함께 진행된 이번 성금요일예배는 1,000여명의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은혜의 시간을 나누었다. (4면에서 계속)

장애인의 날 기념 음악회 3면

어린이 영화상영 ‘아이언 자이언트’ 4면

환경사역팀 정기모임 3면

은사사역세미나 4월 20일 개강 4면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부활주일 16	17	평양노회 18	19	20	21	22
청소년세례식 30CUP예배		영적전쟁과 엘리아 휴간	정기제직회	종보기도 사역세미나1		종보기도 사역세미나2
23 30	24	25	26	27	28	29

주님 만난 다양한 체험의 고백, 장년세례식



지난 9일(주일) 오후4시부터 중예배실에서 장년세례식이 있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과 함께 문동학목

사는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상징이며 성령의 불로 세례 받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예식중에는 한사람 한사람이 올라와 인터뷰형식으로 간증한 후 문동학 목사가 세례를 베풀었다. 현재 혈액암으로 투병중인 이재갑성도를 비롯해, 각자가 주님을 만나게 된 다양한 체험을 고백했고, 예수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심과 주인되심을 선포했다. 듣는 성도들도 같이 기도했다. 간증과 세례가 끝난 후 당회원들이 직접 안수를 해주었고, 참석한 성도 모두가 세례자/입교자들을 향해 ‘당신은 사랑받기위해 태어난 사람’을 부르며 축복했다.

“무지개가 옵니다.”

Family of The Lord 무지개축제
무지개의 꿈



2006년 5월 5일(금) 10시 주님의교회

교회와 예배에 낯선 이웃을 위한 4부예배

- “무덤에 머물러” _ 오늘연주팀
- “부활에 대한 생각들” _ 영상 스케치
- “뭔가 수상한 부활?”
(요한복음 11:25~26) _ 문동학 목사
- “살아계신 주” _ 장근희, 오늘연주팀



30CUP 1주년 감사예배로 초대합니다 오늘(16일) 오후 4시 대예배실

간 중 : 심상혁목사 (나무를 심는 학교 교장)
특 순 : 장윤영 CCM 아티스트
성찬식 : 문동학목사
말 씬 : 빌4:8-9 김현령 목사
“소외된 이웃을 행하여”
(For The Unreached)



Mission 함줄함줄, 표준어사용 시리즈

“우리가 표준말의 희망입니다.”



5월 5일 무지개축제

'알쏭달쏭'의 본래 뜻은, "여러 가지 빛깔로 된 점이나 줄이 고르지 않게 뒤섞여 무늬를 이룬 모양"이다. 거기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여 분간하기 매우 어려운 모양"과, "기억이나 생각 따위가 계속 떠오를 듯 떠오르지 않는 상태"라는 뜻도 있다.

이 때 "알쏭달쏭 생각이 잘 나지 않는다."처럼 쓴다.

그럼, '알쏭달쏭'은 무슨 뜻의 단어일까? '알쏭달쏭'은 '알쏭달쏭'과 반대로 "여러 가지 빛깔로 된 점이나 줄이 고르게 뒤섞여 무늬를 이룬 모양"을 뜻하는 단어이다. '달'과 '알' 한 자 차이지만 뜻은 정 반대가 된다. 하지만 기억에 관해서 사용할 때는 둘 다 사용이 가능하다.

5월 5일은 제4회 무지개 축제가 있는 날이다. 우리의 마음 속에 '알쏭달쏭 고운 무지개'가 꽃피어나기를 소망해본다.

이 기사는 수원시 농촌진흥청 농업공학연구소의 성제훈박사의 이메일 자료에 기초, 교회의 실정에 맞게 재편집한 것이다.

믿음의 산파, 노부모와 남편을 예수님께로

지난주일 세례/입교예배가 있었다. 특별히 이번 예배는 수요일 예배와 분리해서 처음으로 가진 세례/입교예식으로 300여명의 성도들이 참여 가운데 40여명이 세례를 받거나 입교를 했다. 5주간의 교육과 문답식을 모두 마친 지원자 전원은 세례를 받기 전 강단에 올라 신앙간증을 했다. 예식에 참여한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만난 감동적이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눈물을 자아 내기도 했다.

이 날 세례를 받은 사람들 중에는 3명의 가족이 세례를 받은 일도 있었다. 노부모(정병덕/김송월)와 아들(정운용)이 함께 세례를 받은 것이다. 세례는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생일이라는 말에 따르면, 이날은 부부, 부자, 모자지간을 넘어서 이 가정에 세 쌍둥이가 태어난 것이다.

이 아름다운 믿음의 출산에는 숨겨진 기도와 헌신의 산파가 있었다. 그녀는 다른 아님 이번엔 세례를 받은 정운용성도의 아내 김정란집사다. 김정란 집사는 2002년 처음으로 주님의교회 뜰 안을 밟았다.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그녀는 교회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은 새롭고 감격스러웠다고 한다. 구역식구들의 따듯함, 교구목사의



배려, 구역예배의 감동 이 모든 것들이 신선하고 은혜로웠다고 전한다.

2003년 당시 고등학교에 다니는 딸과 함께 주님의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그녀는 남편과 시부모도 세례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해왔다. 변함없는 사랑의 실천으로 가족을 섬기며 믿음의 씨앗을 뿌린 그녀는 2006년 4월 온 가족이 세례를 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사도행전 30-32)

인터넷, 1주일만 하면 한윤경만큼 한다.*

“유용한 인터넷 세상,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1일 열린 하프타임 강좌 “인생은 즐거워” 다섯번째 시간은 빠르게 진행되어 지는 정보의 홍수와 다변화 속에서 컴퓨터 이용에 서툰 분들을 위한 인터넷 강좌로 열렸다.

강사 한윤경교수(경원대)는 컴퓨터 접근이 어려운 세대들을 위해 기초적인 컴퓨터 지식을 간

략하고 재미나게 2시간 30분간 강의했다.

컴퓨터를 만지기를 두려워하는 것에서 벗어나 어떻게 컴퓨터를 쉽게 다룰 수 있을까? 얻어지는 정보를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를 함께 고민하며 인터넷에 대한 개념, 윈도우 XP 기본 작동법, 인터넷의 용도, 정보 검색, 전자 우편, 전자 상거래, 음악 영화 감상, 동호회 활동, 신문 뉴스 보기 등을 상세히 강의했다.

무엇보다도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것’을 모든 참석자들에게 강조하면서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국내시판도서 [인터넷, 일주일만 하면 전유성만큼 한다(나경문화, 1998)]의 제목을 패러디한 것이다. 90년대 후반 후에 개그맨 전유성이 지은 책으로 당시 컴퓨터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모았던 베스트 셀러이다.

한윤경장로는 주님의교회 시무장로로 현재 경원대 소프트웨어대학 경영학과 교수이다.

나눔의 물품 감사편지



복지 선교부에서는 3개월마다 나눔의 물품을 1층 로비에서 나눔의 물품을 수집한다. 지난 3월에 성도들이 기증해 준 나눔의 물품, 400여점은 '길가에교회' 바자회 물품과 홍천의 '믿음의 집', 청주의 '사랑의 집'에 전달됐다. 아래 글은 3월 나눔의 물품에 대한 충북 청주시 '사랑의 집'에서 온 감사의 편지다.

보내주신 옷 다섯쌍자,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 성도님들이 동참해주셔서 협력해 주신 길이 감사드립니다. 기도하면서 모아 모아 보내주신 것이기에 더욱 유용하게 잘 사용하겠습니다. 필요한 그 누구를 찾아주는 미 사역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도 함께 나누는 이 일을 기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사랑은 나누수록 커진다'고 했는데 주님의교회에 이 귀한일을 감당하고 있으니 감사할 뿐입니다. 저희 또한 주님의 응답하심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며 투명하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모든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각 가정 위에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군선교부 전방부대방문

군선교부가 봉고차에 몸을 싣고 봄기운의 그윽함과 따스함을 느끼며 전방부대 5사단을 찾아서 두어 시간을 달려갔다. 사역팀원 한 사람 한 사람은 정겨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을 신병들을 생각하며 험준한 길의 피곤함을 날려버렸다.

성백술장로의 기도와 신화식 목

사의 설교로 예배가 시작되었고 기쁜 소리 찬양단의 아름답고 경쾌한 찬양으로 참석한 여러 신병들과 많은 은혜를 나누었다.

신화식목사는 “말대로 되는 삶”(민수기 14:12~24)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신병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출애굽 과정에서 반복된 불평과 불만은 고난과 역경의 깊이를 더하게

했다고 전하며 말 한마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고난과 역경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확신하며 정탐 결과를 보고했을 때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께서 주신 은혜로 적극적인 의지와 열정으로 살아야한다고 설교했다. 400여명의 신병들의 가슴에 뜨겁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며 군선교활동을 마쳤다.

가 나 한 교 회

칸티클 합창단

켄틸을 합창단은 음악전공인들로 구성된 연주팀으로 소외된 이웃을 위한 봉사과 기독교 선교를 목적으로 창단되었다. 여성합창단, 남성합창단, 혼성합창단이 있으며 아름다운 노래와 찬양을 위한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 다양한 음악을 연주한다.

2006. 4. 24(월) 오후 5시 30분
정립회관 강당
캔티클 합창단 연주회
복지사역본부 장애인사역팀 주관



5호선 광나루역 오후 5시 5분 4번 출구
2호선 강변역 오후 5시 10분
5호선 아차산역 오후 4시 5분 2번 출구

***장애인의**
애인에 대
고 복자
가 주
활

환경사업팀 정기 모임



주님의교회 환경 사역팀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적합한 환경의 이론을 배우고, 생태계를 보전하며 특히 교회와 가정에서 적용할 수 있는 사역을 연구하고 실천하려

이번 정기 모임에는 5·2구역의 김기태 집사를 강사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자연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 강의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창1:1, 창2:3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주를 운행 질서를 만드시기,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생활 할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해야 함을 알고 우리가 이상향으로 여길 세상을 시편의 말씀 안에서 찾았다. 또한 현대 생태학을 언급하며 생물과 환경과의 상호 관계와 관련해 생태계가 파괴되면 인류도 파괴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 우리 사회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자연의 후폭풍을 경험하며, 자연과 인간의 삶을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있다. 환경 문제에 관심 있는 모든 성도는 참여할 수 있다.

1주년을 맞은 오늘은 감사예배로 드려진다. 지난 일 년 간의 사역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문동학목사의 집례로 성찬식을 갖는다.

또한 6월 17-18일은 2006년 1차 수련회를 갖는다. 장로회신학대학교 세계교회협력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수련회는 8교구의 여성구역중 12가정을 남

30대 사역팀은 이번 1주년을 시점으로 안내 브로셔를 제작했다. 새롭게 세워진 사역팀 내의 홍보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사역을 소개하고 30대는 물론 모든 성도들에게 다가가는 노력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셀 모 임 : 주일 / 주중에 모이는 8교구의 구역모임
 셀연합모임 : 매주일 오후 1시 15분~2시 제3집회실(1F)
 30CUP 예배 : 매월 셋째 주 오후 4시 대예배실
 기타 행사 : 여중

Family of The Lord 무지개축제

5월 5일 어린이날 온가족을 위한 교회의 잔치가 열립니다. 전교우 운동회, 먹거리장터, 성경골든벨, 구역장기자랑, 찬양의 시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5월 5일 가족들과 함께 어디를 가야하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의교회에서 가장 행복한 온가족의 날을 준비하겠습니다.

1부 무지개의 시작(운동장)

명랑운동회_4개팀으로 구성 교구별 대항전

2부 무지개의 기쁨(강당주변, 운동장)

도전! 성경 골든벨
한가족 먹거리마당
놀이마당
축제마당



3부 무지개의 희망(대예배실)

교구장기자랑 및 부서/팀 특별발표

이번 무지개 축제는 길가에교회가 함께 참여합니다.

당일 교회 내에 주차할 수 없습니다.

종합운동장주차장과 교회주변을 이용해주세요.(장애인/행사차량제외)

오늘 기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미래가 어떠한든지 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기뻐합니다!

아이언 자이언트(The Iron Giant) 영화상영



오늘 4시 지하 중예배실에서 30CUP 예배에 참석하는 부모의 자녀를 위한 영화상영이 있다. 이 영화는 가족용 만화영화로, 작가 테드 휴즈가 1968년에 쓴 어린이 동화 '철인간(The

Iron man)'을 워너브라더스가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것이다. 디즈니의 전통과 전혀 다른 질감과, 포근한 정서와 시원한 액션, 여기에 순간순간 작은 유머들을 엮을 수 있는 즐거운 만화영화이다.

고칩니다

지난주 2면기사 [하프타임 연강, "건강법" 황의환에서 기사제목과

기사 내용중에 잘못 기재된 강사의 이름을 '황의환'으로 정정합니다. 사과와 말씀을 드립니다.

함줄함을 기사 모집

교회의 안팎에서 성도들이 경험하는 크고 작은 이야기들을 모아 교우들에게 전함으로 아름다운 공동체성을 확립해가는 본지의 목표를 수

행할 기사를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주님의

교회 등록교인입니다.

기자신청 및 신문기사 문의
ontesta@nate.com

(1면에 이어서)

고난주간 새벽기도, 성금요일예배 그리고 부활절



음악예배와 성찬식에 참여한 성도들은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신 그리스도, 그리고 다신 사신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늘은 부활주일이다. 부활절은 교회력의 가장 오래된 축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기뻐하는 날이다. 그리스어와 프랑스어의 부활절 어원은 히브리의 유월절인 페샤(Pesh)에 기초한다. 초기 기독교에서는 유대력 니산월 14일(구약의 유월절) 혹은 그 다음 주일을 부활절로 정하고 성도들이 모여 함께 축하했다. 오늘날 지키고 있는 부활절은 주후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결정된 것으로 춘분 후의 최초의 만월 다음에 오는 첫째 주일이다. 이 날은 주로 세례, 학습, 참회자

의 위로, 죄수의 석방, 가난한 자의 구제, 교역자 위안 등의 행사를 가졌다.

성경을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의 확신 전후에 놀랍게도 비교할 수 없는 차이점이 있음을 발견한다. 엠마오로 향하던 실의에 찬 두 제자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마음이 뜨거워져 새 힘을 얻었다. 슬피 울던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통하여 위로를 받게 되었고, 빈 그물을 걷던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실패 속에서 구원을 경험했다. 공포에 떨고 있던 제자들은 승리의 주님을 확인했을 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복음을 확신하여 순교자의 대열에 들어설 수 있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실망의 늪에서 빠져나와 희망의 길로 갔다. 일련의 사건들은 개인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체험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준다. 2000여년이 지난 오늘, 우리도 일상의 삶 속에서 인격적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소망한다.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가슴깊이 간직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는 의미 있는 부활절을 기대한다.



영아부 종려주일 행사모습

함줄함의 함줄! 함을!

“함께 축하합니다”

◆ 2006년 4월 8일 토요일 2시 중예배실에서는 이정우형제와 신은진자매(청년부)의 결혼이 있었다. 주례는 이정우형제가 출석하는 은천교회 조우방 원로목사가 맡았다.

현재 이 신혼부부는 매주 토요일마다 어와나 클럽에서 봉사하고 있다. 함께 봉사하면서 더 많이 가까워진 것 같으며 웃음을 띠운 자매는 “앞으로도 주님안에

서 함께 봉사하고 기쁨을 나누며 살기를 소망해요”라고 전했다.



“알립니다”

[부르심과 응답] (은사세미나 6주 : 우동윤목사, 사역세미나 6주 : 이창현목사) 이 오는 20일(목) 오전

10:30 대회의실(4층)에서 시작된다. 이 과목은 주님이 주시는 은사를 이해, 발견,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사역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돕는 과목이다.

함줄함을 편집부